

“시범운영해달라더니... 이젠 헌신짝”

도의회 보건복지위 자치경찰단 긴급 현안보고 제주자치경찰 존폐 위기에 도 부실대응 등 성토 자치경찰 존치 특례조항 신설 경찰법 개정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출범해 도민 세력으로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단이 14년만에 존폐 위기에 내몰리면서 제주도의 능력 대응과 함께 특별자치도를 반납하자는 성토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제주 시 연동갑)는 6일 제385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갖고 제주도로부터 자치경찰단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일원화로 선회하게 된 이유가 재정상 부담, 경찰서비스의 효율성 증대 등이지만 결국 중앙부처가 권력

을 나누고 싶지 않은 것 뿐”이라며 “그렇다면 도 당국에서도 얼마든지 예측하고 준비를 했어야 했다”고 도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도의 대응이 늦긴 했지만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유지를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내년 1월 시행까지 시간이 없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 협조를 받거나 행정안전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14년간 공들여 온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고, 정부가 시범 운영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버리냐”

며 “특별법 탄생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된 만큼 이런 특별법이라면 반납하고 말지 불을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찰청은 논의에 참여한 반면 시·도는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시·도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가) 발표됐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고창경 도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단이 도민 혈세(인건비 495억원, 운영비 219억원 등 714억원)로 성장해는 만큼 자치경찰단 통합은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나 법사위원회 논의 때 존치에 대한 특례조항이 삽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을 채택했다.

이날 현안보고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 최근(7월 30일) 당정정 협의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일원화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존폐 위기에 놓인 제주자치경찰의 존속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의안에 따르면 향후 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유지한 채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고 자치경찰은 관할 구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를 수행한다.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백규탁기자

“지구의 이웃, 목성·토성 보러오세요”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30일까지 프로그램 진행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은 오는 30일까지 ‘목성과 토성 관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6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천체투영실 영상 관람(15분) ▷전시실 관람(10분) ▷천체관측(25분) 순으로 진행되며 약 50분 가량 소요된다. 목성·토성은 천체관측 기간 동안 날씨가 좋으면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다. 칠월칠석인 25일에는 견우별과 직녀별, 27~30일 사이에는 달도 볼 수 있다.

목성과 토성은 태양계에서 1·2번

째로 큰 행성으로 망원경으로 각각 특징을 확인 할 수 있다. 목성은 빠른 자전으로 생기는 표면 줄무늬와 갈릴레이가 관측한 4대 위성을 볼 수 있다. 토성은 갈릴레이가 양쪽의 귀로 표현했던 크고 작은 얼음으로 이뤄진 수많은 얇은 고리들을 관측할 수 있다.

관측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홈페이지에서 참여 요일에 따라 2~3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입장 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739-9701-2.

현영중기자 yihyeon@ihalla.com



해녀체험하는 관광객들 6일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해녀학교를 찾은 관광객들이 해녀체험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11일 긴급 지역현안 논의

제주시는 오는 11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과 정책 간담회를 열어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시는 간담회에서 송 의원에게 도두사수항 정비(10억원)와 서부지

구 국민체육센터 건립(120억원), 제주보육원 개축(25억원),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40억원) 등 총 195억원 규모의 국비 확보 시급성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잠라인 등 레저스포츠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당부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동우 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알림

수해 피해 이웃돕기 성금모금

한라일보는 한국신문협회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2020 수해 피해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부산, 경북 영덕·울진, 대전, 충북 청주 등 전국 곳곳에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민과 피해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 성금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사는 성금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모금기간 : 2020년 8월 7일 - 8월 31일(월) 에 급 주 : 재해구호협회 인터넷 기부 : 희망브리지 홈페이지(www.relief.or.kr) 휴대폰 문자 기부 : #0095(1건당 2,000원) ARS 기부 : 060-701-1004(한 통화 3,000원) 성금 모금 안내 : 1544-9595	계좌번호 농협 106906-64-003747 국민은행 054990-72-003752 기업은행 001-000375-93-285 신한은행 5620-28-88597633 우리은행 001-098482-18-953 하나은행 061-04-00051-686 에 급 주 : 재해구호협회
--	--

한라일보 · 한국신문협회

고품질감귤 생산 ‘삼각공조’ 뒀다 서귀포농기센터-남원·효돈농협-생산단지 협약

품질 브랜드 감귤 공동출하 등 유통 모델을 정립하고, 감귤가격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기술 보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농협과 감귤 생산지와 손을 잡는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6일 남원농협(조합장 김문일)·남원농협고품질감귤 생산단지(회장 김용호) 및 효돈농협(조합장 백성익)·효돈농협고품질감귤 생산단지(회장 오명철)와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센터는 성목이식 등 감귤원 구조 개선 핵심기술 보급, 토양피복을 통한 고품질 감귤 생산 기술지도, 시기별 생육단계별 현장기술 컨설팅, 영농기술 정보

제공 등 고품질 감귤 생산단지 회원의 재배기술 향상 및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농협은 고품질 감귤의 최상의 가치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브랜드 개발, 홍보, 유통, 출하 등 마케팅을 강화해 감귤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기여한다.

생산단지 회원은 과원 매일 출근하기, 핵심 생산기술 실천을 통해 고품질 감귤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센터는 올해 표준과원조성 고품질 감귤 생산 핵심기술 실천 거점 과원 육성을 위해 남원농협 15농가(6.1ha), 효돈농협 6농가(2.2ha) 등 2개 단지·21농가(8.3ha)를 대상으로 시범단지를 조성했다.

백규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개발공사, 5억 규모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사회공헌분야 등 1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가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오는 14일까지 2021년도 JPDC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분야도 사회공헌, 수자원, 임대주택 등으로 확대해 주민들의 참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공모 분

야에 대해 삼다수봉사대 활동, 물 홍보관 및 견학로 시설물·콘텐츠, 공공임대주택 환경 개선 등 공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제안을 접수한다.

공사는 제안서 접수 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거쳐 전체 예산 규모 5억원 이내에서 2021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1만원 이내 기프트콘이 주어진다. 문의 (064)780-3506. 백규탁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비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필수올린,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병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훈스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알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생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농업인이자면 이 광고를 보셔야합니다

감귤·만감 하우스 농가 *일조가모자랄때:광합성 작용을 위해 하우스 천정으로 살포 =해피그린 1병(50말)을 일주일 간격 2회→당 상성과 연관이 있으므로 꼭 살포할것

키위농가 *건물중을 높이기 위해 하이휴믹(천연가리)관주:1000평에 500g을 100말에 희석하여 한달간격 2회

양배추·양파·브로콜리 농가 *육묘 키울때: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V패스(500ml) 12.5말로 2~3회 살포 *정식할때:V패스를 조루로 충분히 관주후 파종

마늘농가 *마늘종자소독:파종 하루전 키토산(2L)25말로 희석하여 침지하거나 조루로 충분히 묻혀 관주후 다음날 파종 = 종자를 막형성시켜 세균이 침범하지 않으며 뿌리가 나오면 미생물 먹이가 되어 발아가 균일하게됨

감자농가 *더밍이병과시들은병예방을 위해 토양소독:V패스(2L)+썰파고(8L)를 50말에 희석 500평 관주후 경운

제품소개

- 해피그린 : 희토류가 들어있어 염색소 함량 증가로 광합성 능력을 회복
- 하이 휴믹 : 부식산에서 추출한 고농축 천연가리
- V 패스 : 희토류와 양자에너지로 합성된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제
- 썰 파 고 : 나노유황과 콜라겐으로 만든 균 예방제

(주)포트라 제주지사 곱탕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